

■ 世界發明史에 記錄된 ■

그것과

페달 자전거

“
아버지,
자전거가 너무 불편해요.
좀 더 편한
자전거는 없어요?”

15세기의 이탈리아 화가이자 발명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연구노트에서 자전거의 설계도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주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자전거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다빈치에 이어 1818년 독일의 드라이스 남작, 1839년 영국의 맥밀란, 1861년 프랑스의 피에르 미쇼, 1890년 영국의 로슨 등 수많은 발명가가 지혜를 모아 자전거의 발명에 정열을 쏟았다.

이 많은 발명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자전거 제작의 기업화에 성공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 미쇼였다.

프랑스 파리의 변두리에 위치한 미쇼의 만물수리상에는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벽이 보일세라 가득히 쌓여 있었다. 고장난 물건을 귀신처럼 모두 고쳐내는 미쇼의 솜씨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는 잠시나마 앉아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라이스가 설계했다는 자전거 한 대가 고장난 채 미쇼에게 맡겨졌다.

발명가의 이름을 따 ‘드라이스호’로 불린 이 자전거는 사람이 타고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장난감 같은 것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미쇼는 고장난 드라이스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수리를 시작했다. 한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수리를 마친 그는 완벽한 수리가 되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 아들인 에른스트에게 직접 타보도록 했다.

“아버지, 자전거가 너무 불편해요. 좀더 편한 자전거는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난 아들의 말이었다.

당시의 자전거는, 발로 땅을 찰 때 생기는 힘으로 전진하는 데 다 페달도 없어 장난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했다.

아들의 얘기를 듣고 있던 그는 순간적으로 전진을 겸한 페달이 달린 자전거를 생각했다. 만물박사로 통하는 미쇼에게 그 정도의 물건을 만드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수리를 의뢰한 다른 고장난 물건들을 제쳐놓고 그는 작업실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페달이 달린 자전거 연구에 몰두했다.

그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나자 미쇼는 창백해진 얼굴로 작업실에

그들은 누구인가

서 나왔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 눈부신 듯 얼굴을 찌푸리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페달이 달린 자전거의 발명에 성공한 것이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인 1861년이였다.

미쇼가 새로운 자전거를 만들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자전거를 만들어달라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만물수리상은 어느덧 자전거 제조공장으로 탈바꿈해 버렸다. 바쁜 일손을 덜기 위해 아들과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온 가족이 정신없이 자전거 만드는 일에 몰두했던 첫해에는 90대나 되는 자전거를 팔았고, 다음해인 1862년에는 142대나 되는 자전거를 팔아 꽤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3년째 되는 해에는 프랑스 전역은 물론 영국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왔다. 더 이상 가족의 힘으로만 지탱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미쇼는 300여 명의 종업원

을 채용했다.

이때부터 자전거는 자전거 역사상 처음으로 대량생산의 체계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전거의 인기는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다. 밤낮으로 자전거를 만들어내도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자전거의 인기가 날로 더해 가면서 1868년 5월 31일에는 파리에서 세계 최초로 자전거경주대회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 온 유럽으로 알려지면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끊임없이 주문이 들어왔다.

미쇼가 억만장자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이처럼 발명이란 예나 지금이나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것을 찾아 편리하게 고치려는 노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

商標 · 意匠法의 諸問題

(주)한빛 지식소유권센터 발간

실무상 반드시 필요한 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집

4·6배판 / 15,000원, 구입문의 : 567-1657